

# “AI 막아라”... 전남도 야생조류 차단방역 총력

### 철새도래지·주변 도로 광역방제기 동원 매일 소독 현수막·입간판 등 설치... 전담공무원 가금농가 지도

닭·오리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또다시 AI(조류 인플루엔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내 철새 유입이 늘면서 서울·경기 등 일부 철새 도래지에서 H5형 고병원성 AI 환원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AI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보유한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철새 도래지에 차단방역 홍보를 위해 현수막 69개와 입간판 50개를 설치했다.

시·군 전담공무원 1221명을 동원해 가금농가 대상 축사 그물망 정비 등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지도하고, 문자발송 등을

통해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가금농장 및 가금도축장에서는 매일 가금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지난 1일부터 도와 시·군에 27개소의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발생위험 9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 오리류 유통을 금지하는 등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우 야생철새가

축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축사 그물망을 보수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방사형 농가는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잔반 급여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최근 국내에 철새 유입이 늘면서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신고(1588-4060)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문화로 하나되다. 지난 21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3회 광주·전남 문화주간 개막식에서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종식 광주경제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광주전남 문화로 하나 되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 속도낸다

### 전남도, 연내 추진위 발족

### 내년 1월 후보 추천 예정

전남도가 고흥 소록도에서 43년간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할매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정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가 연내 발족할 예정이다. 추천위 등은 내년 1월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두 간호사를 수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본명이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oeger·83)와 마가렛 피사렉(Margareth Pissarek·82)인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

과 1966년 한국 땅을 밟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했다. 한 편의 보상이 없이 빈손으로 살다가 2005년 11월21일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소록도를 떠났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고흥군,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 홍보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추천위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정, 정계, 학계, 종교계, 법조계, 기업, 해외교포, 복지·의료·봉사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후보 추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학교, 단체, 성당 등에서 상영하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지난 16일 안 올레 그레브스타 주한 노르웨이 대사과 마하엘 슈바르징거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를 초청해 국제사회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홍보관도 운영된다.

노벨평화상은 매년 1월 말까지 세계 각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초 수상자를 발표한다.

올해는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에 기여한 국제 NGO 단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라선 SRT 신설 건의

###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7차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임 의장은 “여수와 전주를 비롯한 전라선 지역주민들은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중시하는 철도 분리정책에 희생돼 경부선·호남선과 비교해 운행횟수와 요금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전라선 SRT노선 신설로 강남권 직통운행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전남·북 지역의 일반철도 공공성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해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 태양광·풍력 확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로

전남도가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달성 계획보다 시기와 비율이 높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남도는 이같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남 태양광 설비량은 920MW 전국(3615MW)의 25.4%를 차지한다.

풍력 설비량은 137MW는 전국(853MW)의 16.1%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이 전국 1위를 차지하지만,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소음·전자파·환경피해 등 지역 민원을 감당해야 한다.

전남도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시·군 참여를 유도하려면 실질적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측정항목(지역 경제비 중 다목 산업 경제비)에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용지 확보 필요성도 부각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이고 태양광 2500MW, 풍력 2500MW, 해양에너지 385MW 등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 어선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내년 47억 지원

전남도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에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내년 도내 등록어선에 47억 원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형 LED 등을 보급하고 저효율 기관·장비·설비를 대체해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요 보급 장비는 고효율 디젤기관,

선외기, LED등, 어탐 기능 GPS, 조타기,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이다. 이 가운데 선외기 지원 대상은 2t 미만, 100마력 이하 어선이다.

다만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제외되고, 디젤기관 어선은 기존 어선의 마력을 초과해 대체할 수 없다.

LED등 사업자 선정은 기존 LED 집어등 설치 어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낚시 어선은 제외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산구청 출신 인사 청와대 입성 주목

### 최용선·최치현 행정관 임용

민행배 광산구청장의 최측근들이 속속 청와대에 입성, 주목받고 있다.

지역 정계에 따르면, 최치현 광산구 전 열린민원실장이 23일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실 행정관에 임용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용선 전 광산구 정책팀장이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민 청장의 핵심참모로, 지난 7년간 광산구가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용선 행정관은 정책팀장으로 일하면서 주도 도시계획 프로그램 ‘생생이카데미’와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모범 모델 ‘GIS 분석시스템’을 창안했다.

최치현 행정관은 열린민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칸막이를 뛰어 넘는 과

감한 행정으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왔다.

입주 문제로 갈등을 빚은 폐기물 처리회사와 삼거동 철성마을 주민들의 합의를 이끈 것이 대표 성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례를 높이 평가해 광산구를 ‘2016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에 선정했다.

지역 정계에서는 ‘실전’으로 단련하고 검증받은 이들 지역 인재가 청와대에서 실력을 발휘해 새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 청장으로서 민 주당 경선에서 청와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들 행정관이 민 청장과 청와대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당노콘서트

# 나의 인생 첫 당노학교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6시 태영21병원(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주최 · 당노와건강 환우회

강사 · 가슴 뛰는 내과 유중현원장 | 상무역사거리 서광주로 병행  
 보라안과병원 문귀형원장 | 상무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광주21세기병원 오선종원장 | 수원지구 관절척추병원  
 인 하루 치과 이광훈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 21 병원 양태영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삼성서울병원 김재현교수 | 현 당노병학회 총무이사  
 내분비내과

공연 · 클래식 콘서트 퀸즈퀸텟

예약 · 010-5155-0075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세요. 예약 필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태영 21 병원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